열손가락 가락지 믿음

(롬9:30~33)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33.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열손가락 가락지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열손가락에 다 가락지를 낀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기생 논개가 생각이 나지요, 임진왜란 당시 1593년 7월에 왜군이 진주성을 함락하고 난 뒤,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진주의 남강 절벽 위에 있는 촉석루에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진주성의 관기였던 논개가 이 잔치에 참여하였고 계획을 세우지요.
열손가락에 가락지를 낍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았을 것 같아요, '왜 열손가락에 다 가락지를 끼웠느냐?'고.
하여간 독특한 취향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당시 진주성을 함락시킨 왜장 게아무라 로쿠스케가 술에 취해있는 틈을 타서 그를 유혹해서 시퍼런 물이 흐르고 있는 절벽 위로 데려가서 가락지를 낀 두 손으로 게아무라 로쿠스케를 껴안고 아래 남강의 물로 풍덩 빠져 죽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열손가락 가락지 믿음이라는 제목을 비유적으로 끄집어내본 것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서.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논개가 게아무라 로쿠스케를 껴안은 상태를 좀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듯이 본다면 논개가 적장과의 거리를 없앴습니다, 그렇죠?

그 게아무라 로쿠스케와 논개와의 거리가 없어지면서 왜장이 죽은 거예요.
만약 논개가 이 왜장과 거리를 두었다면 게아무라 로쿠스케는 멀쩡하게 살아서 술에서 깨어나 그 다음날도 진주성을 계속 약탈하는 만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아마 이 왜장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조선민족이 칼부림을 면치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적장과의 거리를 없앰으로써 이러한 만행이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이 왜장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마음에 좀 꺼림직 합니다만 이건 비유에요, 비유.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비유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그대로 따와서 신앙에 적용을 하자면, 십자가 예수님은 논개가 적장 게아무라 로쿠스케를 껴안은 것처럼, 내 마음의 열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끼어 안으면 나를 구원하는 주님이 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딪힐 돌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산산조각을 내 버리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온 대로 부딪힐 돌이 되지 않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려면 내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시려면 내가 그 주님을 열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과 거리를 없애지 않으면,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없이 죽으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딪힐 돌이 되십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부딪힐 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삶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내서 의미 제로인 삶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업을 좀 잘해볼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내가 이 분야에서 제1인자가 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열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껴안지 않으면, 그래서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주먹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리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주님을 껴안지 않으면, 지금 내가 내 분야에서 1인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고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먼지 같은 겁니다.
내가 자식을 어떡하면 좀 잘 키워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먼지가루 하나 얻겠다고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십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열손가락 반지 끼고 껴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주님을 껴안지 않으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의미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개가 열손가락 가락지 끼고 왜장을 껴안았던 것처럼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마음으로 껴안아야 됩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껴안음으로써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정답이에요.
그렇게 지금 내게 닥쳐진 문제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그 문제를 껴안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부딪힐 돌이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과 부딪혀서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의미 제로의 삶이 됩니다.
지금 완전히 헛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먹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열손가락에 가락지 끼고 주님을 꼭 껴안아서 세상 문제에 대해서 죽어요, 어떡하든지 십자가의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둥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죄 사함 받는 데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조금도 간격 없이 붙어있을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우리가 갖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논조는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대체 동족 이스라엘이 모든 여건에서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더 유리할 것만 같은데, 근데 왜 그들이 믿지 않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9장 마지막 부분에서 논조가 급변합니다.
다시금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초점을 맞춘 논조에서 우리의 주체적인

책임을 묻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 맥락을 모순으로 보지 말고 신비로 보자고 그랬어요, 신비로.
분명히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애쓰고 싸우듯이 믿고 지나간 뒷자리를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언제나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이유는 나를 택정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택정을 받은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정말 내가 믿을 때의 현장의 순간을 생각하면 도저히 모순되어서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신비하게도 돌아서 회고를 할 때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잘 믿고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한 선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공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무한한 자비하심에 근거된 나에 대한 선택에 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참 모순처럼 보이는 이 신비함에서 우리의 책임이 강조되는 맥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라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의를 따르지 않았다, 이건 어떤 뜻이 될까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지 않았지요.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혹시 우리 중에도 의를 따르지 않는 삶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의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의를 따르는 삶이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가 사춘기가 돼서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됩니까?

이때 의를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반항하는 자녀를 앞에 두고 그 자녀를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반항하는 자녀가 있는 이 와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반항하는 반항기를 가지고 계속 나가다가는 그 인생에 예측불허의 불행이 닥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의해서, 내 자식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길로 이끌어볼까 하고, 모든 세상 부모들이 갖는 당연한 마음가짐을 가질 게 아니라, 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자식 걱정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반항하는 자식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의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지금 망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의를 따르는 삶은, 어떻게 직장에서 상사의 마음에 잘 들어서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해서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렇게 회사와 상사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회사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보디발의 마음에 들 것인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의를 따르는 삶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 가면 직장상사의 마음에 들려고 하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문제를 끌어안고, 교회에 가서는 목사님마음에 들어야 되고 장로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마음에 들어야 될 대상이 달라지는데, 의를 따르는 삶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가는 곳마다 오직 하나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마음에 들려고 산 길이 31절에 보면 율법이었거든요? 근데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과는 관계가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32절에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마음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마음에 들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에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얘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마음에 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시장에서든 그 누구를 만나서든 간에 항상 믿음을 통해서 앞에 있는 사람과 놓여 져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걱정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마음에 들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행위'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에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게 뭘까요?
믿음에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마음의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행위에 의지하는 것은 마음의 심장이 몸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닥치면 그 가정의 문제에 내 마음이 반응해서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답을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마음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가정이 부자가 되는 것을 답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하나님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마음에 들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심장은 어디에 가있습니까? 돈에 가있습니다, 승진에 가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승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장님 마음에만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마음에 들기 위해 교회에 가서 충성합니다, 교육부 부장님으로 헌신합니다.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심장은 어디다 주었는가 하면 세상의 승진에 주었고 돈에 주었고, 세상의 가치에 줘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이 내 몸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마음에 들어서 내가 마음심장을 주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이루겠다고 한 거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행위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마음에 들려고 했느냐? 내 행위를 통해서.

그런데 사도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네 마음의 심장을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느냐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음의 심장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똑같이 돈에 주고, 출세에 주고, 성공에 주고, 형통에 주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똑같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정신을 망각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딴 데다 주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 그 마음을 주고 있는 것들을 이루려고 했으니 결국 하나님마음에 들지 못하게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주님의 십자가복음이 전해지자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는 방법은 논개 식으로 사는 거예요.
열손가락에 가락지 딱 끼고,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의 주님을 꽉 껴안아버립니다.
꼭 내가 해결해야 할 것만 같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이런 것들을 껴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껴안아버립니다.
십자가주님은 죄 용서함에만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삶 전체가 십자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꽉 껴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으면서 주님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지요.
이래서 하나님마음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면 지금 내게 당면해진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러지 않고, 내가 그 문제에 맞서서 행동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 문제에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마음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삶을 산다든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즉 내가 노력하는 최선의 노력들이 다 무의미한 것으로 되게 해버리는 부딪힐 돌이 돼버리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는 삶, 행위를 의지하는 삶을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마음의 열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십자가의 주님을 논개가 왜장을 껴안듯이 그렇게 꼭 껴안고 풀리지 않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내 마음이 등지고 떠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논개가 왜장을 껴안듯이 우리 마음의 열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므로, 한순간 한순간이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